

동전주 퇴출제 시행...전남광주 상장사 ‘생존 전략’ 분주

주가 1000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요건 강화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증시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저가주를 정리해 자본시장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제도 개편이 현실화되면서 주가와 시가총액이 낮은 상장사들은 주식병합(액면병합)과 무상감자, 자본구조 개선 등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전남광주 지역 상장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1000원 안팎의 저가주 구간에 머무는 일부 상장사들은 이번 제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환경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식병합과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제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실적 개선과 재무건전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장 유지 기준 강화...동전주 퇴출제 본격 시행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상장 유지 기준이 한층 높아졌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달부터 주가와 시가총액 기준을 강화한 상장폐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을 밑돌

디와이에이·파루에 한국첨단소재·다이나믹디자인 등 가시권

액면병합·무상감자 ‘자구책’...“실적·재무건전성 개선 병행을”

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제도 시행과 함께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주식병합 결정 건수는 29건으로 지난 3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발행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격을 높이는 액면병합이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른 영향이다.

다만 시장의 평가는 신중하다. 액면병합은 거래 단위와 주가를 조정하는 효과는 있지만 기업의 실적이나 재무구조를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액면병합을 실시한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신주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했고, 일부는 다시 1000원 아래로 내려앉았다.

△지역 상장사도 변화의 영향권

지역 상장사 가운데 대표적인 동전주로는 자동차 부품업체 디와이에이(옛 대우에이텍)와 순천에 본사를 둔 신재생에너

지기업 파루가 꼽힌다. 두 기업 모두 최근 주가가 1000원 아래에서 거래되며 강화된 상장 유지 기준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한국첨단소재, 다이나믹디자인, 보해양조 등은 현재 1000원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저가주 구간에 머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코스타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개별 종목의 주가와 시가총액 변동폭도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 기업들도 투자심리와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이번 제도가 단순히 저가주를 걸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가 방어뿐 아니라 사업 경쟁력과 수익성을 함께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업별 대응도 ‘각양각색’...관건은 체질 개선



지역 기업들은 각자의 경영 여건에 맞춰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액면병합을 추진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재무구조 개선과 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디와이에이는 최근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회사는 적정 주가 형성과 기업가치 제고, 투자환경 개

선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명을 대우에이텍에서 디와이에이로 변경하고 광주 1공장 생산설비와 충남 아산 신공장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등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다만 높은 부채비율과 유동성 부담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한국첨단소재는 최근 2대 1 액면병합을

마치고 거래를 재개했다. 광통신 부품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는 연구개발 투자와 신규 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해 자금 조달에도 나서고 있다.

다이나믹디자인은 10대 1 무상감자를 통해 발행주식 수를 줄이고 결손금 정리와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향후 사업 안정화와 실적 회복 여부가 기업가치 회복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증권업계는 액면병합이나 감자가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실적과 재무건전성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재무구조 개선이 뒷받침돼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은 기업가치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단위를 조정하는 성격이 강하다”며 “지역 상장사들도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 경쟁력과 수익성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KTX·SRT 통합’ 고속철도 호남선·전라선 좌석 확대

내달 1일부터 열차 증편·좌석 ↑...최대 4822석 추가 공급
운임 인하·통합 예매 앱 도입...수도권 접근성 대폭 향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KTX·SRT 고속철도 통합 운영에 따라 호남선과 전라선의 열차 운행이 확대되고 좌석 공급이 늘어나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KTX·SRT 통합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SR)이 추진하는 고속철도 서비스 개선의 핵심 사업이다. 일원화된 예매 체계 구축과 열차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통합으로 호남선과 전라선 운행이 확대된다.

호남선은 주중(월~목) 하루 운행횟수가 95회에서 100회로, 주말(금~일)

하루 운행횟수는 96회에서 100회로 늘어난다.

좌석은 하루 기준 주중 3742석, 주말 4822석이 각각 추가 공급된다.

전라선은 주중(월~목) 하루 운행횟수가 40회에서 45회, 주말(금~일) 하루 운행횟수는 45회에서 54회로 증편된다.

좌석은 하루 기준 주중 1957석, 주말 2511석이 추가 공급돼 이용객들의 승차 기회가 한층 넓어진다.

전국 단위로는 주중 하루 1만5000석, 주말 하루 1만7000석 규모의 좌석이 추가 공급되며 주말 열차는 26회 증편된다.

특히, 수서측 좌석 공급이 약 30% 확대돼 전남광주에서 수도권 남부지역으

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고속철도 운임은 기존 KTX보다 평균 10% 낮아지고, 모든 통합 고속철도 이용객에게 결제금액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한다.

기존 SRT 구간에도 환승 할인과 온라인 특가 등 다양한 혜택이 확대 적용된다.

이용 편의도 개선된다. 지난 3일부터 출시된 통합 앱 ‘코레일플러스’를 이용하면 KTX와 SRT를 하나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다. 다음달 1일 운행 열차 승차권은 5일 오전 10시부터 예매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고속철도 통합이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서울과 수도권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관광과 기업 활동,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에 선발된 제20기 드림청년 400명이 233개 드림터(참여사업장)에서 하반기 일경험을 시작했다.

전남광주특별시, 드림청년 400명 일경험 시작

233개 드림터서 12월까지 5개월간 실무 경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표 청년 일자리정책인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에 선발된 제20기 드림청년 400명이 233개 드림터(참여사업장)에서 하반기 일경험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제20기 드림청년은 지난달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청사에서 열린 ‘드림만남의 날’을 통해 선발됐다. 사흘동안 1486명이 방문해 사업장 상담과 현장면접 등을 거쳐 최종 400명이 확정됐다.

선발된 청년들은 오는 12월까지 최대 5개월동안 연결(매칭)된 사업장에서 일경험에 참여하며 급여를 지급받는다.

통합특별시는 청년들의 원활한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사흘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청사에서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첫날인 3일에는 사업 안내와 안내 교육(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해 감성 찾기, 신입사원 조직 적응 및 팀단합 교육이 진행됐다. 둘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참여

일정에 따라 노동관계 기본사항과 현장 대응방법을 다루는 노무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소풍, 재무관리, 마음가짐 교육도 진행한다.

특히 일경험 종료 후 참여청년을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장에는 청년 1명당 최대 240만원의 연계채용 특전(인센티브)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기국 교육청년국장은 “경력과 직무 역량을 증시하는 채용환경에서 일경험은 청년이 취업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현장 적응부터 채용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경력을 쌓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업·농촌 새롭게”...농업 현장 목소리 하나로 모은다

전남광주 농업대전환 협의회 출범

농협전남본부는 4일 본부에서 전남·광주 농협과 주요 농업인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 농업대전환 협의회’ 출범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농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농업계 공동의 정책과제로 발전시켜 특별시 농정에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전남·광주 농협과 주요 농업인단체 대표 등 총 9명이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농협과 농업인단체가 개별적으로 정책을 건의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농업계가 공감하는 핵심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는 농정 협력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협의회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농협과 참여 농업인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농업소득 향상과 생산



농협전남본부는 4일 본부에서 전남·광주 농협과 주요 농업인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 농업대전환 협의회’ 출범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비 절감, 농촌 인력 부족, 기후변화와 농업재해 대응, 농산물 유통·판로 확대,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등 농업 현장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과제를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광일 전남광주 농업대전환 협의회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농업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농업인단체와 농업이 한목소리로 농업소득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의 의견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시 농정으로 이어지도록 협의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전남광주농기원, 오리 사육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농식품부 공모 선정...2028년까지 13억7500만원 투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원이 국내 최대 오리 주산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리 사육시설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저탄소·고효율 사육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냉·난방과 환기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절감해 농가의 경영비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전남광주농기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8년까지 총 13억7500만원을 투입하는 ‘오리 사육시설 에너지 저감 기자재 개발’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사육량의 약 49%인 260만 마리를 사육하는 국내 최대 주산지로, 냉·난방과 환기 등에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는 사육환경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연구에는 전남광주농기원 축산연구소를 비롯해 순천대학교, 수에너지㈜, ㈜기반테크, ㈜아이온텍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연구진은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 설비와 단열·차열 기자재, 에너지 절감 필터, 스마트 환경제어 솔루션 등을 개발하고 이를 오리 사육시설에 적용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운영기술을 확립할 계획이다.

축산연구소는 국내 오리 사육시설의 에

너지 사용량과 환기, 사육환경 실태를 조사해 생산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개발 기술을 농가에 실증 적용해 에너지 절감 효과와 생산성 향상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영기술과 표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연구가 완료되면 오리 사육농가의 에너지 비용과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스마트축산 기술 확산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는 전남광주농기원 축산연구소장은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과 안정적인 사육환경 조성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기술을 개발해 경영비 절감과 저탄소 축산 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